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강동구, 농촌사랑 일손돕기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회장 김문옥)는 지난 7일 서울강동구새마을회(회장 성흥수)와 함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천면 포도농가와 부귀면 사과농가를 방문하여 일손을 도왔다.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는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일손돕기에서는 진안군새마을과 강동구새마을 회원 등 100여명이 포도 순따주기와 사과 솎아주기를 진행했다.

김문옥 회장은 "강동구새마을회와 함께 농촌일손돕기를 할 수 있어 농가들에게 도움이 돼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일손돕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격려차 현장을 찾아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찾아와 도움을 주신 새마을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보건위생과, 일손돕기로 농촌 활력 넣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보건위생과 직원 20명이 10일 농번기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산면 용신리의 감 농가를 찾아 감 새순 집기 및 감 솎기 등의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여했던 직원들은 평소 농촌 일이 익숙하지 않아 서툴러서 힘들었지만 일손돕기로 농가에 보탰다.

해당 농가는 "일손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었는데 더위에도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기꺼이 일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은 "농촌 고령화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가족센터, 한국문화 체험 · 지역탐방 나들이

남원시가족센터는 지난 8일 관내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이해와 정서적 유대감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탐방 나들이를 가졌다.

대상은 관내 기업체와 농장, 원어민 강사 등 외국인 근로자 30명은 전주 청을전통문화원을 방문해 한복체험, 생활예절교육, 비빔밥 체험, 다도 등 한국문화체험을 하였으며, 인근 명소인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했다.

한편, 남원시가족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강면 지사협, 우정식당 착한가게 3호점 선정

남원시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표, 권기환)는 10일, 우정식당(대표:박태선)을 '착한가게' 3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박태선 대표는 "좋은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사업이 잘 추진되어 지역경제도 살리고 기부문화 확산으로, 대강면과 남원시 모두가 행복하고 훈훈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권기환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의체는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법무보호기금 마련 · 보호위원간 교류'

법무보호공단 전북, 전북지부협의회장배 '제1회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골프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0일 전주샹그릴라CC에서 '전북지부협의회장배 제1회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골프대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한명옥)가 주최하고, 전북지부 사전심담위원회(회장 이정준)가 주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골프협회(회장 이영국)와 전북지부 각 기능별위원회가 후원한 가운데 40명이 참석해 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기금 마련 및 보호위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한명옥 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골프대회가 기금 마련이 주된 목적이지만, 각자의 역할과 방식으로 소중한 봉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스코어보다는 페어플레이와 함께 즐겁게 경기를 즐기면서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경주 지부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위원님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보호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기자

"학생자치 실현"… 장수교육지원청, 학생의회 정기회 개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 학생의회 의원 21명은 지난 8일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 의원 7명과 함께 특별한 정기회를 가졌다.

먼저 멘토 멘티 맺기, 명함 교환하기, 진로 상담 등의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11일 2개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3개의 안건인 △통학 바우처 카드 지원 정책 △버스 배차 간격과 막차 시간 재조정 △학교시설 개선 정책을 처리했다.

장수학생의회 강승철 의장은 "장수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으며, 장정복 군의회 의장은 "이번 학생의회 정기회 개최를 계기로 학생의원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영곤 교육장은 "장수군의회 장소를 공유해 준 장수군의회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생자치 역량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성숙 부안 백련농장 대표, 장류발효대전 대상 수상

부안군은 관내 마을기업 백련농장 김성숙 대표가 제6회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등이 후원한 대한민국장류발효문화대전은 한국의 장류발효문화의 계승 및 복원을 위해 장류발효 개발자들을 발굴하는 전국 전통장류농가의 큰 축제이다.

최고의 명품장을 가려내는 행사로 전국에서 300여개 팀이 출전해 치열한 경합을 이룬바 김성숙 백련농장 대표가 4대 장류 된장 부문 대상, 응용 소스 경연 부문에서는 쌈장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백련농장은 부안군 하서면에 위치해 있으며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을 위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경영철학으로 하는 마을기업이다.

이 기업은 2012년 마을기업 지정을 시작으로 기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행안부 인증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됐다. 현재 상근직원 4명, 일용직 7명으로 모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4억 7,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백련농장 마을기업 조합원이 직접 농사지은 연잎, 콩, 보리, 고추 등 우리 농산물을 100% 수매해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전통 장류와 차를 생산 · 가공 · 제조해 6차 산업 인증을 받았다.

전통 메주,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연잎차, 연근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콩 10톤을 수매해 메주로 5톤을 판매, 남은 5톤을 간장과 된장을 담아 판매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금동행정복지센터, 아름다운 배려 창구 운영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동장 조윤기)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아동을 동반한 민원인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창구는 평소 일반 민원창구로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가 방문하면 일반 민원인보다 우선해 번호표를 뽑지 않고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간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신체적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작은 배려로부터 시작된 시책이다.

또한 '친절 민원 안내 도우미'가 입구에 상시 대기하고 있어 입구에서부터 따뜻하게 민원인을 맞이해 각종 신청서 작성 및 해당 업무 부서 안내를 비롯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안내, 거동 불편 민원인 보조 등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의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교월동 소산마을 최정복 통장, 200만원 쾌척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소산마을 최정복 통장이 지역의 소외된 저소득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정복 통장은 아너소사이어티 전북 44호, 김제 3호 회원으로 매년 정기적인 기부(연 2천만 원)를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화재 피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2백만 원, 정화암선생 생가보존회에 1백만 원, 산정마을 숙원사업에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많은 선행활동으로 지역사회 내에 귀감이 되고 있다.

최 통장은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옥규 교월동장은 "관내 주민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흔쾌히 내어주는 최정복 통장에 감사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폭염 대비 노인 보호 대책 강화

남원시는 최근 폭염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기상청에서는 올해 폭염 및 열대야가 더 증가할 전망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남원시는 6월부터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특보(주의보 · 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인 생활지원사(215명)가 취약노인(3,050명)을 대상으로 유선 · 방문 등을 통해 안전 및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과 건강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댁내 장비(동작감지 등)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호출기를 눌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활동 감지기를 통해 대상자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서비스를 취약노인 355명에게 제공하고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무더위쉼터(경로당) 이용을 마을방송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폭염 대책 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비 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가수 우연이, 진안군 고향사랑기부 500만원 기탁

지난 8일 열린 진안군 정천면민의 날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전춘성 진안군수에게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우연이 씨는 "진안군은 진안홍삼축제 등에서 출연 가수로 참가하면서부터 연을 맺어 가깝게 느껴지는 곳 인만큼 이렇게 좋은 기회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기부금이 진안군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가수 우연이 님의 고향사랑기부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연이 씨는 2001년 '남자인데'로 데뷔해 '우연히', '당신만', '몰랐네' 등의 노래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트롯신이 떴다,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준우승) 등 여러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간식 부스 장학금 기탁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간식 부스 참여 업체 8곳이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4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간식 부스 참여자는 '맛나포차' 김말자 대표와 '선비꼬마김밥' 최수영 대표, '달콤디저트' 김형심 대표, '브랑코카페' 박미순 대표, '숙주와 삼결살&육전' 백은경 대표, '파머스구판장' 김동영 대표, '바비&수리' 서미경 대표, '줌마꼬꼬' 안옥빈 대표로 각 업체 대표들은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바가지요금 없는 영화제, 일회용품 없는 착한 영화제의 명성을 이어가는 데 일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맛있는 간식으로 산골영화제의 즐거움을 더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하게 돼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착한 영화제라는 명성을 안겨준 무주산골영화제 간식 부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아이들을 위한 선행에 앞장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